

<미트웨어 - 모임>

## [경계를 넘어서]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 재일교포 청년들의 이야기 나눔

2016년 10월 30일 오후 5시, 더플하우스

### 1. 히라야마 유키(신웅귀)의 이야기

저는 히라야마 유키, 한국 이름은 신웅귀입니다. 한국 나이로 36살이며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도쿄에서 살고 있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피스보트에 탔습니다. 19살에 배에 탄 후 그 때부터 피스보트 스텝으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 19살 때 일 년 동안 열 개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모이면, 이들을 열 명씩 태우고 작업장을 찾아 다니며 안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용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씩 일당을 받았습니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몇 개월 지속하다 보니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 때 피스보트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이 피스보트를 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후 배에 탔습니다.

피스보트 스텝으로 일하기 전에는 피스보트는 유엔과 같은 큰 국제조직이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막상 피스보트 사무실을 처음 가 보았을 때의 느낌은 제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30여 명 정도가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 피스보트 스텝으로부터 평화를 위한 세계일주 혹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갈라파고스 등의 생태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도 피스보트 스텝으로 일하면서 가본 곳 중에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는, 아시아 영역으로 피스보트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한국에서도 내년도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일조선인임을 알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19살 때 한 위안부 포럼에서 우익들에게 둘러싸이고 혐

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우익들하고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스보트 스텝으로부터 재일조선인,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일조선인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즈음 사촌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안의 내력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이 어머니 가방을 정리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본 후 우리 가족이 외국 국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도 어쩌면 재일교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재일 교포 친구들에게 했더니, 그 친구들은 제 이름(히라야마: 한자로 '신'을 뜻함. 유키: 한자로 '웅귀'를 뜻함)을 보고 재일교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동사무소에 달려갔고 가서 몇 개월 동안 제 이름의 근원을 추적했습니다. 추적 결과 제가 태어날 때의 이름은 신웅귀였는데, 3살 때 부모님이 제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모를 통해 우리 가족이 모두 재일교포임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통해 긴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어머니가 이름과 사는 장소를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일생의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국적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꾸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와서 저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재일교포로서, 그리고 피스보트 활동가로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아가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역적으로 아주 가깝기도 할 뿐더러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동안 진실한 대화를 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제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재일교포 전예임의 이야기

### **질문 1 :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입니다. 일본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였으며, 활동을 한국에서 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 **질문 2 : 일본에 있을 때 상상하던 한국과 막상 한국에서 생활해 보면서 느끼는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은 사람들이 재일교포의 존재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적에 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국적을 한국과 일본 두 개 다 갖고 있거나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왜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질문 3 : 조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조선학교와 일본 학교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에서 유치원 때부터 19살 때까지 18년간 조선학교를 다녔습니다. 조선학교와 일본학교와의 다른 점은 우선 한국 민족의 지리, 역사, 언어 등을 배운다는 것이 있고 일본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일본의 과오가 담긴 역사를 삭제하는 것)와는 다르게, 일본 정부의 도움을 안 받고 있으니까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본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교보다 수업 시간이 더 많은 편입니다.

### **질문 4 : 왜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게 되었나요?**

일제 식민지 시기에 강제 노동으로 징용되어 온 사람들도 많았고, 가난해서 일자리 때문에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된 후 한국 정부가 챙기지 않은 셈입니다. 미군정 시기에 재일교포들이 한국에 올 때 얼마 되지 않는 재산조차 들고 올 수 없어서 일본에 남은 사람도 많습니다. 한편 한국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노래를 잘하고 끼가 많기 때문에 가수, 연기자, 운동선수로 일본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일본에서 경험한 직접적인 차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본에서는 다른 어떤 외국인들, 사회적 약자들보다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유독

심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모든 학교에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을 조선 학교에만 주지 않음으로써 조직적인 차별을 선동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차별을 당한 경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인 저고리를 입고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쳐다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피하거나, 다른 시선으로 쳐다봅니다.